광주글로벌모터스 경형 SUV 시험 생산 돌입

9월 양산체제 돌입 마지막 단계
1000만원 중반…젊은 세대 공략
차량·차명 8월 공개…연 7만대 판매

전국 최초 지역 상생형 일자리 기업인 광주글로벌모터스가 5일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 시험 생산은 차체를 시작으로 도장, 조립 등 공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오는 9월 양산 체제 돌입 전 마지막 단계로 실제와 똑같은 제작 과정을 거쳐 차를 만든다.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차체 공정에는 로봇 118대와 인력 29명이 투입된다. 대부분 지역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는다. 자동차의 색상을 입히는 도장 공정에는 로봇 38대와 인력 82명이 투입되며 환경을 고려해 시너 대신 물을 사용한다. 사측은 성능 시험을 거쳐 완벽한 품질을 갖추게 되면 시제품을 생산하게 된다.

생산차종은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SUV)다. 경차 혜택과 SUV의 강점을 접목한 아이코닉(ICONIC) SUV를 지향하고 있으며, 모닝과 레이의 기아차, 쉐보레 스파크의 한국GM이 양분한 경차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1000만원대 중반 가격, 차별적인 디자인,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등 연계 기능으로 2030 젊은 세대를 공략하고 저렴한 유지비, 실용성 등으로 5060 중장년층 수요까지 품겠다는 전략이다.

차량과 차명 등은 오는 8월께 공개될 예정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현대차가 개발·판매하는 차량을 위탁 생산하는 형식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자기 자본 2300억원, 타인 자본 3454억원이 투자됐다. 광주시(483억원)가 1대 주주, 현대차(437억원)가 2대 주주다. 광주 광산구와 전남 함평군에 걸쳐 있는 빛그린 국가 산업단지 60만여㎡에 10만대 생산 라인을 구축했다.

우선 1교대 생산 방식으로 연간 7만대 판매를 목표로 설정했으며, 연간 20만~30만대를 생산하는 규모로까지 확장을 꿈꾼다.

이번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기반으로 친환경 차 등 미래 자동차 생산 기술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아시아 차량 생산 기지로 도약하는 게 글로벌모터스의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기술직 경력 53명, '베테랑 서포터즈' 5명, 기술직 신입 사원 186명을 선발했다. 모집 중인 137명 신입 사원을 더해 380여명 기술직 인력을 확보해 양산 1교대 인력을 채운다. 일반직 경력·신입 사원 150여명을 포함하면 모두 520여명으로 회사는 출발한다. 연간 20만~30만 생산 역량을 갖추게 되면 근무 인력도 1000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게 정말 되겠냐' 걱정했던 분도 많았지만, 2019년 12월 착공 후 1년 4개월만에 시험가동을 현실화했다"며 "노사 협약 체결, 자본금 유치 등 민선 7기 들어 가장 힘들었던 현안이 결실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글로벌모터스가 5일부터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의 시험생산에 들어간 가운데 자동차의 뼈대를 만드는 차체 공장에서 로봇 118대가 시험 가동 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에 전복 가공품 출시 '눈길'

영화 '자산어보' 개봉 맞춰
전국 GS25 편의점서 시판

전남도가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을 담은 영화 '자산어보' 개봉에 맞춰 지역 특산품인 전복 가공품 판촉전에 대대적으로 펼치는 등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 평정에 시동을 걸었다.

전라도와 GS리테일은 5일 "전남산 전복을 가공해 개발한 가정간편식(HMR)을 전국 GS25 편의점 1만3000여 매장에서 일제 시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한국 영화의 흥행 보증 수표인 이준익 감독이 배우 설경구, 변요한 등과 함께 조선 순조(1814년) 때 정약전의 흑산도 유배 생활을 흑백으로 담은 영화 '자산어보' 개봉일과 맞춰 진행했다. 수산물 가정간편식 출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양식수산물 소비는 줄어든 반면 수산물 가정간편식 시장이 2016년 160억원에서 2019년 340억원으로 2배 이상 수직 상승한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전남도와 GS가 의기투합해 지난해 7월부터 준비했다.

현재까지 출시된 제품은 전복 간장비빔과 고추장비빔, 완도 광어조림 등 총 3종으로 전국 GS더프레시(슈퍼마켓)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번에 GS25 편의점에 출시한 제품은 전복 간장과 고추장 비빔 2종으로 판매가는 개당 5900원이다. 제품 홍보를 위해 GS편의점에서 제품 구매자에 한해 선착순으로 자산어보 영화예매권 1인 2매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펼친다.

전남도 공식 유튜브 채널인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홍보콘텐츠 생중계와 참가자 대상 '전남도에서 생산되는 천일염 양치 소금' 사은품 증정도 함께 진행한다. 앞으로 시장 공략을 위해 우럭 맑은탕과 전복해초무침을 추가로 출시해 소비자가 간편하게 전남의 수산물을 맛보도록 할 방침이다. 연말까지는 수산물을 이용한 각종 기능성 제품과 소스류 등도 출시할 예정이다.

위광환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수산물 양식업계의 판로개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어업인, 국내 대형 유통업계와 함께 가정간편식 시장에 도전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가고 싶은 섬 '국제 워크캠프' 개최

해안정화·재능기부 등 자원봉사
이달부터 개최 홍보·외국인 모집

전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내외 청년들이 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이 펼쳐지는 섬에서 재능기부로 활력을 충전하는 '국제 워크캠프'를 개최한다.

올해는 총 8회의 워크캠프 프로그램을 열어 청년과 섬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국제워크캠프'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지난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마을을 복구하기 위해 유럽 각국의 청년들이 프랑스에 모여 재건과 화합을 도모한 평화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87개국에서 서로 다른 문화권의 청년들이 모여 1~3주간 함께 생활하며, 봉사활동과 문화교류를 하는 국제교류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섬마을의 활력을 찾고 해안을 정화하기 위해 워크캠프 운영단체를 공모해 국제워크캠프기구를 선정, 진도 관매도와 여수 낭도에서 '국제 청년 섬 워크캠프'를 진행했다. 체코, 필리핀 등 6개국 26명의 국내외 청년이 섬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올해는 국내 장기 체류 중인 다국적 청년과 국내 청년이 모여 해안정화, 재능기부, 마을 경관 정비 등 다양한 형태의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워크캠프 개최 홍보와 외국인 모집 활동을 시작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시작으로 자원봉사자 모집을 한다.

모집 대상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국내 체류 중인 해외 유학생과 국내 대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관심 있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워크캠프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기후변화와 환경이라는 주제로 섬마을 현장에서 온라인 교류의 장을 펼친다.

워크캠프 참가자와 해외 청년이 온라인에서 만나 실시간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소통하고 환경에 대해 고민하는 비대면 국제교류 형태로 진행한다.

김충남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전남 섬에서 펼쳐질 청년들의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섬마을의 활력을 되찾고, 해안정화 활동이 지속적인 캠페인 활동으로 확산하길 바란다"며 "전남 섬에서 청년과 섬 주민이 함께 만드는 섬 가꾸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로컬관광산업 생태계 조성
전남도, 예비창업가 30명 모집

전남도는 로컬 관광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광 분야에서 참신하고 창의적 사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가 3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해 교육 및 사업화를 지원한다.

모집 대상은 빠른 관광시장의 변화에 맞춰 ICT 기술 접목, 지역 콘텐츠 체험 등 새로운 관광 분야 산업에 창업하려는 만 19~55세의 전남 거주자(20일 이내 전입)로, 현재 같은 업종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자에 한하며 12월 10일까지 사업화가 가능해야 한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예비 창업가 간 협업하거나, 선도기업가와 협업하도록 1대1 맞춤형 기본·개인 실무 교육 및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예비창업자를 뿌리가 튼튼한 관광 사업가로 육성할 방침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30명 내외의 예비 창업가 가운데 창업 컨설팅 실무 교육과 심층 면접 평가 등을 통해 선발된 10명에게는 평균 2000만원 상당의 사업화 자금도 제공한다.

창업 지원을 바라는 도민은 30일 오후 2시까지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www.jeonnam.go.kr)와 전남관광재단(ijnto.or.kr)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전남의 관광산업을 IT·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지역 관광자원 등과 결합한 맞춤형으로 전환할 유능하고 참신한 젊은 관광 사업가를 육성하겠다"며 "이들이 전남 미래 관광산업의 생태계를 이끌 관광선도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전남도, 126억원 배정

전남도는 2021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자를 최종 선정하고 본격적인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해 1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우선 80개 기업에 86억원을 지원해 5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69개 기업에 사업개발비 10억원, 지역특화 15개 기관·단체에 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일자리 창출 재정지원사업을 추가 공모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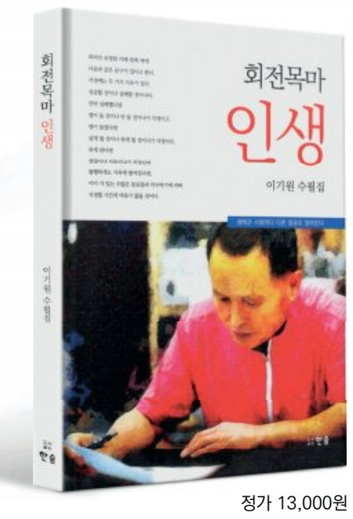
선정된 기업은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확보해 고용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개발비는 제품의 연구·개발·홍보 등을 목적으로 지원돼 사회적기업의 성장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특화사업을 통해 전남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모델 발굴과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등도 추진한다.

그동안 전남도는 재정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 인건비, 제품 성능·품질,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는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의 밑거름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라도 영광 촌놈 이기원이 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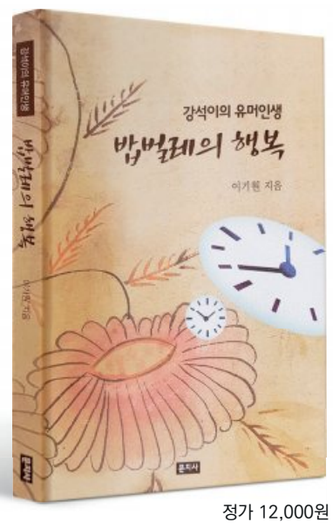


'회전목마 인생'

인생은 회전목마처럼 반복적으로 돌아간다.
단지 주인공이 다를 뿐이다.

"파리의 유명한 카페 한쪽 벽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다고 한다. 걱정에는 두 가지 사유가 있다.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다. 만약 실패했다면 병이 들 것이냐 안 들 것이냐가 걱정이고 병이 들었다면 살게 될 것이냐 죽게 될 것이냐가 걱정이다. 죽게 된다면 천당이냐 지옥이냐가 걱정인데 불행하게도 지옥에 떨어진다면, 이미 가 있는 수많은 동료들과 악수하기에 바빠 걱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이다."

정가 13,000원



'밥벌레의 행복'

강석이의 유머인생
유머와 에세이의 만남

작은 책상과 TV와 노트북, 책꽂이와 장롱이 서로 기대고 있는 서재방인지 골방인지에 쭈그리고 앉아 지나온 발자취를 회상하며 글을 써본다.
이왕이면 재미도 곁들여서 말이다. 이를테면 유머형 에세이다. 별로 특별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소중한 인생이라고 자위해본다.
이 책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든 분들께 조금이나 위안이 되고 삶의 활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정가 12,000원

서점판매 | 광주(영풍문고, 충장서림, 세종문고, 초원서점, 나남문고, 글방문고), 순천(중앙서점), 목포(영풍문고)
전주(영풍문고, 웅진서적, 홍지서림, 민중서관), 김제(제일서림), 완주(혁신문고)

인터넷판매 | 교보문고, 영풍문고
알라딘, 예스24 (배송료 무료)